

제2강 동남의 작은 중화(小中華) 복건

이광수(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동남의 작은 중화(小中華) 복건

만일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내다보고 싶거나, 확 트인 바다를 보고 싶다면,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있고, 한 쪽은 바다에 접해 있는 복건이 바로 그 곳이다.

복건의 산은 높지 않다. 가장 높은 무이산맥(武夷山脈)의 최고봉인 황강산(黃崗山)이 2,158m에 불과하다. 하지만 복건의 산은 수많은 계곡과 흐르는 강물이 어울려 빼어난 절경을 이루고 있다. 무이산의 구불구불한 구곡(九曲), 복주(福州)의 고산(鼓山) 등이 바로 산과 물이 조화롭게 어울려 있어 예로부터 ‘산수지음(山水知音)’이라 하였다. 뛰어난 산수로 인해 많은 위인명사들이 자연을 벗삼아 사는 은거지로 유명한데, 주자로 불리는 무이산의 주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복건의 바다는 마치 하북성의 북대하같은 웅대하고 광활한 느낌은 없으며, 해남의 하얀 모래사장과 뜨거운 파도는 없다. 하지만 따뜻하면서도 조용한 바다위의 정원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대만을 마주하고 있는 하문의 고랑서(鼓浪嶼)에서 완만하면서도 리드미컬한 파도소리를 들노라면 근대시기의 복건의 역사를 체감하게끔 한다. 조그만 섬에 불과한 고랑서는 영국, 프랑스 등 서양 열강이 복건을 지배했던 대표적인 조계지역으로 아직까지 그 흔적이 남아있다.

복건인은 역사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문화적 특징을 갖고 있다. 복건을 흔히 자연, 문화적 차이에 따라 민둥, 민서, 민남, 민북으로 나누기도 한다. 민둥의 사족(畬族) 풍경, 민서의 객가문화, 영정의 토루, 민남의 해안여인, 하문과 천주의 남양문화와 외국 풍물, 민북의 복주 서원문화 등은 다양한 문화가 복건에서 기묘하게 융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중국역사의 중심지인 중원(中原)에 비교해 보면 복건은 발전 수준이 매우 느리지만, 역사와 문화는 오히려 깊고 두텁다. 복주, 천주, 장주, 장정 등은 역사문화고도이다. 복주의 ‘삼방칠항(三坊七巷)’은 폭이 수 백 미터에 이르는 곳으로 북경의 고궁에 비해 절반에 가까운 크기이다. 여기에 100여명에 이르는 역사의 위인들이 관련되어 있고, 건축물은 ‘강남 고대 건축의 예술 보고’ 또는 ‘명청시기 고대 건축 박물관’으로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만약에 복주가 사람에게 주는 인상이 구중심결의 장중함과 엄격함이라면, 또 다른 역사문화도시인 천주는 다원적 문화의 모습을 느끼게 한다. 송원시대 동방의 제1항구라고 불리웠던 고성(高城)은 수많은 이국 풍광을 갖추고 있다. 또한 천주는 개원사(開元寺) 대웅보전을 통하여 불교성지로서 불교문화유산도 볼 수 있다. 중국의 남방의 도시에 불교, 도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마니교, 유태교 등이 함께 어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하문은 1980년대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한 지역이다. 대만의 영토인 금문도와는 불과 10km 거리이다. 따라서 하문에는 대만 자본이 본격적으로 투자되면서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있다.

중국에는 많은 관광자원이 있다. 만리장성, 고궁, 병마용, 구채곡, 여강고성, 상해외탄 등. 그러나 너무 유명해졌기 때문에 관광객들로 인해 번잡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다. 복건은 동남연해에 떠 있는 나뭇잎처럼 크게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에 경이로움을 느끼게 해 주는 곳이다.

I. 복건의 자연환경

산이 많아, ‘동남 산국(山國)’으로 불리기도 했다. 서고동저 지형으로 민서지역은 산과 구릉으로 되어 있으며, 민동은 바다에 접하여 도시가 발전해 있는 형태이다. 지리적 특징은 복건의 특유한 역사와 문화를 낳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복건은 중국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은 바다에 접해 있다. 구불구불한 해안선이 기다랗게 이어져, 위쪽으로는 절강과 접해 있고, 아래쪽으로는 광둥성과 마주하고 있으며, 바다를 사이에 두고는 대만과 서로 바라보고 있는 형태이다. 대만이 실제 지배하고 있는 마조도와 금문도는 대만보다 오히려 복건성의 복주와 하문에서 불과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을 정도로 근접해 있다. 하문시 중심부는 섬으로 되어 있는 하문도이며, 대만영토인 금문도 방향으로 덩샤오핑(鄧小平)이 중국과 대만의 양안 통일방안으로 제기한 “일국양제, 통일중국(一國兩制, 統一中國)”이라는 구호를 써 놓은 표지판을 설치해 놓고 있다. 이에 맞서 대만도 금문도에 “삼민주의, 통일중국(三民主義, 統一中國)”이라고 손문(孫文)이 제기했던 삼민주의를 내세운 통일방안을 내놓음으로써 맞불을 놓는 형상이다. 하문시와 금문도의 거리는 우리나라의 백령도, 연평도와 북한의 해주와의 거리처럼 매우 가까우며 분단의 상흔과 긴장상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다. 대만영토인 대담도(大担島)와 이담도(二担島)는 하문에서 4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날씨만 좋으면 망원경으로도 멀리 있는 표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명 ‘피아노섬’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하문의 고랑서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으로 가면 금문도를 볼 수 있다.

대만 영토인 마조도는 복주와 가까이 있고, 금문도는 하문과 근접해 있다. 중국의 여행객들은 신청을 통해 하문에서 금문도로 건너갈 수 있다. 하문의 평화부두(和平碼頭)에서 금문의 수도부두(水頭碼頭)로 하루에 두 차례씩 배가 왕복하고 있다. 여행객들은 금문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는 금문도의 특산품인 금문고랑주와 금문부엌칼을 기념품으로 구매해 가져오기도 한다. 금문 부엌칼은 1950년대 대륙의 공산당군이 금문의 국민당군을 공격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포격했던 대포의 탄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구성이 강하다. 그밖에 금문고랑주와 사탕(貢糖), 도자기가 4대 금문 특산품이다.

민북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비교적 낙후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북지역은 역사적으로 보면 융성했던 시기도 있다. 진당(晉唐)이후 중원에서 복건으로 인구가 대규모로 이주해 왔다. 민북주량은 바로 중원이주민들이 이용해 온 길로써 당시 선진문화였던 중원문화를 받아들이는 통로였으며, 이를 통해 송나라 시기에 무이산에서 이학(理學)이 발달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민서지역은 산이 많기 때문에 중국이 건국되기 이전 시기 중국공산당의 근거지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민서지역은 공산당이 설립된 지 10년이 채 안되어 불법조직으로 몰리면서 장제스의 국민당 군대의 토벌을 피하기 위해 숨어들었던 곳이다. 상항(上杭)현의 고전(古田)이라는 곳에서 1929년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뿌리인 홍군(紅軍)에 대한 공산당의 지도원칙과 인민군대로서의 성격을 규정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민서는 객가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다. 영정토루는 객가인의 전통적인 건축양식인 원형으로 된 집단 주거양식의 특징을 지금도 보존하고 있다. 객가인은 사실 중원인으로서 남하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언어와 풍속습관들을 그대로 보존해 오고 있다.

복건의 남쪽은 광둥과 접해있는데, 방언계통으로 보면 광둥 북부의 조산지역의 언어는 민남

방언에 속한다. 두 지역의 문화나 풍속도 매우 비슷하며, 전형적인 배란다형(骑楼)건축양식을 보이고 있다. 즉 건물이 길이나 골목 위를 가로질러 있는 형태인데, 일층 건물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통행로를 확보하고 있고, 2층부터는 건물로 구성된 형태이다. 또한 두 지역 사람들 모두 공부차(功夫茶)를 마시기를 좋아하는데, 공부차는 시간(工夫)을 들여 음미하면서 마신다(品饮)라는 의미가 깔려있다. 그만큼 다기가 매우 정교하고, 일정한 방식과 예의범절에 따라 차를 마시는데, 객가인들은 손님을 접대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마시기를 좋아하는데, 여기에는 조상을 경외하는 마음이 담겨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민남은 전통적으로 유명한 화교의 고향이다. 1874년 천주부(지금의 하문시)에서 태어난 화교 기업가 진가경(陈嘉庚)은 기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자금을 고향인 하문시 집미구에 집미대학을 비롯한 초, 중, 고, 대학교와 체육관 등을 세웠다. 진가경은 또한 하문을 대표로 하는 하문대학도 설립했다.

북건의 동쪽인 민동 연해지역은 민남의 자기우월적인 의식 외에 지리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는 복주가 큰 특징으로 자리하고 있다. 복주는 전통적으로 중앙이 북건성을 통치하려고 보낸 지방관들이 거주하던 지역으로서 관료적 색채가 타 지역보다 농후하다. 복주 사람들에게는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하나의 필수적인 과정이자 일로 본다. 따라서 복주에는 책을 읽거나 학문을 연마하는 사람들이 많다. 복주시의 남후가(南后街)에 있는 ‘3방 7항(三坊七巷)’에 가면, 깊고 커다란 대저택이 아닌 집이 없다. 이곳은 복주의 전통적인 중심시가지로서 의복, 필기구 등 학문연마와 관련된 곳이 많은 시장이다.

II. 북건의 역사

북건은 고대에는 ‘민월국(闽越国)’이라고 불렸다. 대체로 전국시기 말기에 월나라 구천의 후손인 무제(無諸)는 진시황에 의해 위협받자 전란을 피하여 남쪽인 북건으로 넘어와, 본래 살고 있던 민인(閩人)들과 융합하여 민월국을 형성하였다. 명말청초 시기 사상가이자 실증적인 학문 경향을 갖고 있던 고염무(顾炎武)는 『일지록(日知录)』에서 “진나라 장수 왕전(王翳)이 강남을 공격하여, 월군으로 복속했다. 유방이 세운 한나라가 흥하자 동해왕 요가 민월왕 무제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월나라를 유지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에 의해 고대에 민월국이 북건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했다고 주장된다.

송대에 북건의 유명인사 중에 빼놓을 없는 사람은 바로 주자학의 시조 주희(朱熹)이다. 그는 민북의 용계(龙溪)에서 태어나 평생 북건을 벗어나지 않고 학문연마와 강학에 힘썼다. 그가 창립한 ‘민학(闽学)’(즉 주자학)은 유가학설을 집대성한 것으로 유교의 주요한 통치사상이 되었고, 후대 중국의 봉건왕조체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근대 역사학자 전무(钱穆)는 주희를 가리켜 “중국 역사에서 오랜 과거(즉 고대)에는 공자가 있었으며, 멀지 않은 과거(즉 중세)에는 주자가 있었다. 이 두 사람은 중국학술사상사 뿐만 아니라 중국 문학사에 있어서도 지극히 큰 업적을 쌓았으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전체 역사를 통틀어 보더라도 어떠한 사람도 두 사람의 업적에 비할 수 없다”고 하였다. 북건 출신의 유명 역사학자인 채상사(蔡尚思)도 “동주(東周)는 공자를 낳았고, 남송(南宋)에는 주희가 있었다. 중국의 고대 문화는 산둥 태산과 북건 무이었다.”고 북건의 위상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무이산에는 주희가 사서집주(四书集注)를 집필하고 교육을 하였던 ‘무이정사(武夷精舍)’ 유적지가 남아 있다.

송원시기의 북건은 대외무역이 가장 발달한 시기였고, 그 중심지는 천주이다. 천주는 고대에는 엄나무라는 의미를 지닌 ‘자동(刺桐)’이라 불렸다. 일설에 의하면 성을 축조하기 이전 엄

나무를 둘러 심어 성벽처럼 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천주는 송원시기 대외무역창구로 발달하였다. 마르코 폴로는 동방견문록에서 자동항구를 언급하면서, 천주를 서구에 소개하였다. 인도에서 향료와 화물을 실은 배들이 천주로 오면, 남송 상인들도 언제나 천주항구로 모여든다. 상업화물, 보석, 진주를 주로 수입하는데 그 양이 실로 엄청나 민기 힘들 정도이다. 민남사람 특히 천주, 진강 사람들은 두뇌회전이 빨라 장사에 능하다. 오늘날 민남 경제는 복건의 다른 지역보다 발전시기도 빠르는데 이 역시 역사적 전통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다.

명나라 시기에 이르러 천주에서는 봉건적 문화전통에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시대의 이단아가 출현했다. 바로 이직(李贄)이다. 복건인의 문화전통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산 문화이며, 또 하나는 바다 문화이다. 산 문화 대표자는 자연히 무이산에 은거하여 유학을 집대성한 주희이다. 주희의 이학(理學)은 유가학설을 집대성한 것으로 공자와 맹자의 도를 해석한 것으로, 주희의 사상은 민복의 깊고 구불구불한 산악에서 형성된 것으로 위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보수적이다. 반면에 바다의 문화는 탁 트인 시야와 거침없는 파도처럼 개방적이고 반역의 씨앗을 품고 있다. 송명시기 정주이학이 수 백 년 동안 사회질서와 사람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천주에서는 해상무역과 다원적인 문화의 교역과 교류를 통해 잠재적으로 전통에 반대하고 항거하는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다. 일생을 기존 질서와 사상에 대항한 인물로서 바다 문화의 대표인물인 이지가 그 역할을 담당했다.

이지 이후 청나라 말기에 복건은 또다시 문화적 발전기에 접어드는데 바로 문무를 겸비한 임칙서와 중국 최초의 서양유학생 엄복을 대표로 하는 개방과 혁신의 물결이다.

청나라 말기 중국이 직면한 것은 선진 과학기술과 첨단 군사력을 앞세운 서양 열강의 침략이었다. 이러한 시기 넓은 시각으로 동아시아의 ‘종이 호랑이’ 중국의 변화를 도모했던 인물이 바로 복건성 복주 출신의 임칙서였다. 그는 중국의 실상을 인식하고 서양을 높이 평가한 현실주의자였다. 아편밀매를 단속하고 아편을 몰수하여 소각하는 한편 서양의 발전상을 소개한 저서 화사이언(華事夷言)과 사주지(四州志)를 편역하였다. 쇠약해진 중국이 실제 힘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서양을 배우는데 있다고 보고, 중국 근대연구와 서양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후 양무운동과 계몽주의 무술유신 등의 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866년 복주 마미선정학교(馬尾船政學校)가 설립되어, 초대 선정대신으로 부임한 심보정은 임칙서의 사위이다. 이는 근대 이래 첫번째 해군학교로서 전학당과 후학당으로 분류되는데, 전학당은 프랑스어와 군함제조, 후학당은 영어와 항해를 배웠다. 선정학당은 중국 근대공업과 해군의 요람으로서 전통에서 현대로 이행해 가는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은 학당에서 서구식 교육을 통해 현대과학기술을 배우고, 우수학생들은 영국과 프랑스에 유학을 보냈다. 이후 이들은 중국의 근대화에 각 분야에서 활약한 인물들이다. 해군으로는 유보첨, 등세창, 임영승, 임태증, 엽조, 사진빙이 있으며, 철도와 조선 부분에 담천우, 위한 그리고 외교 부분에 진계동 등이 있다.

특히 복주인인 엄복은 개별적인 영역에서 중국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노신이 의사를 그만두고 문학을 선택한 것처럼, 그도 중국사람들의 관념과 생각을 바꾸고 싶어했다. 청일전쟁 이후 중국 해군에 대해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엄복은 북양해군의 패전에 깊은 충격을 받아, 서양의 도서와 신문들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민중을 계도하고자 하였다. 그는 다윈의 진화론(天演論),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原富),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法意) 등 서양의 민주와 과학 관련 저술을 중국어로 번역하였다. 1920년대 5.4 신문화운동이 중국의 현대화를 이끈 상징이라고 한다면 엄복은 신문화운동에 영양분을 공급한 최초의 학자이다. 신문화운동의 개척자들 가운데 엄복이 번역한 도서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만일 북경대학이 신문

화운동의 북방의 발원지라고 한다면, 북주의 마미선정학당 역시 남방 발원지라 할 수 있다.

Ⅲ. 객가족 이주와 정착(토옥)

중국에서 천여 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대규모 이동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중원에서 강한평원(江漢平原)으로 옮겨왔고, 대별산과 남령을 넘었다. 내륙 깊숙이 살았던 고향에서 동부의 해안가로, 혹은 남쪽의 산과 고개로, 더 멀리는 바다 너머 타국으로 이주하였다. 중국의 민족 가운데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민계(民係: 한족에 포함되지만 독특한 풍속과 혈통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집단으로 55개의 소수민족의 하나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 단위)’로서 전란과 기아와 재해 그리고 정치적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나 이동한 민족이다. 현재까지 이들 민계는 약 8,000만 명 정도인데, 학계의 통계는 적게는 5,000~6,000만 명 수준에서 많게는 1억 2,00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중국 대륙과 대만, 홍콩, 마카오 등지를 비롯하여 세계 80여개 국가에 분포되어 여전히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바로 객가(客家)인이다.

‘객가인’이라는 명칭은 전쟁의 흔적에서, 폭우의 세례에서, 산바람의 때림에서, 바닷물의 침투를 통하여 서서히 도출하고, 하루하루 선명해 지고, 객가인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역사에서 커다란 획을 긋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범중암, 구양수, 문천상, 홍수전, 손중산, 주덕, 곽말약, 등소평 등이 있다.

객가족의 대규모 이주는 5차례이다. 서진시기 흉노족의 대륙 진출, 당나라 황소의 난, 북송 말기 요, 금의 남하, 청나라 초기, 태평천국운동시기 이다. 다섯 번째 이주는 객가인의 해외 이주를 자극하였다. 중국의 남부지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이주현상과 더불어 국내정치, 경제, 사회적 원인으로 인해 남송 말기 이래 700여년 동안 각지의 객가인들이 하문, 선두, 광주, 해구, 호문, 홍콩 등 항구에서 배를 타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버마, 인도네시아, 태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멀리 미주 대륙까지 이주하였다. 또한 육로를 통해서는 광서, 운남을 거쳐 버마나 베트남 등지로 갔다. 남송 말기의 항원운동, 청나라 초기의 ‘반청복명’, 청말의 태평천국운동 및 손중산의 초기 무장봉기 등이 각각 실패하면서 해외로 도피한 사람들 이외에 상당한 규모의 빈곤 농민과 도시빈민들이 스스로 원양상선을 타거나 혹은 납치, 유괴, 고용을 통해 ‘계약직 노동자’로 싱가포르 등의 나라에서 힘든 노동에 종사하였다. 20세기 중엽 이래 다시금 외국에 거주하던 화교들 가운데 구미 국가들로 이주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Ⅳ. 천주 - 해상실크로드의 출발점

천주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은 해상실크로드의 기점이라는 데에서 기인한다. 바다로의 비단길이 개척되지 않았다면 중세시기의 천주의 발전과 문화적 전통은 없었을지 모른다. 천주에 들어서면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더라도 ‘해상실크로드’ 문화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천여년의 역사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천주에 다양한 형태의 유적지와 사료를 남겨놓은 것 이외에 천주인들의 정신세계에 깊이 영향을 끼치면서 오늘날 천주사람들의 성격과 민간 풍속에 나타나고 있다.

해상실크로드의 형성은 서한 시기에 형성되어 중원과 연해 지역의 상인들은 도자기, 옷감, 비단 등 상품들을 바다를 통해 스리랑카, 인도 등지로 운송하였고 멀리는 이집트와 로마로까지 갔다. 동시에 동남아시아와 유럽의 상인들이 가져온 모직품, 유리그릇 등 이역의 상품들이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바로 해상실크로드의 주 교역상품들이다. 또 하나 바다를 통해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가는 동쪽 바다 항로도 있었으며 이는 해상실크로드 중 두 번째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천주는 복건성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구불구불한 해안선을 통해 천혜의 항구의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다. 천주항은 진강의 바다쪽 출입구에 위치하여, 겨울에는 얼지 않고, 그다지 춥지 않으며, 진흙으로 많이 퇴적되어 있지 않고, 태풍을 피할 수 있는 지역을 넓게 갖추기 있다. 남북조 시기에 이미 대외교통과 통상항구의 역할을 하였다. 남조 진문제(陳文帝, 560-566)시기에 인도의 고승 진제(眞諦)는 『속고승전(續高僧傳)』에서 “보통의 조그만 배가 양안군(梁安郡)에 도착하면, 물건을 잔뜩 싣고서는 서쪽 나라로 돌아가려 한다.”고 한 바 있다. 양안이 바로 천주인데, 천주에서 바다로 배가 출항하는 사실을 기록한 최초의 문자 기록이다.

천주항의 대외무역이 가장 발전하기 시작한 때는 당나라 때이다. 이 시기 복건 남부는 인구가 급증하고 농업과 수공업도 크게 발전하여 해외무역이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안사의 난(安史之亂)’으로 인해 육로 실크로드가 봉쇄되자, 중국과 서방의 교통은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었고, 복건 연해에 있는 항구도시의 발전을 촉진하였고, 천주항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후 광둥성의 광주가 황소의 난으로 인해 공격을 받아 약탈을 당하자, 천주항이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오대 십국 시기에 천주를 통치한 왕연빈(王延彬), 유충효(留從效), 진홍진(陳洪進) 세 사람은 해외무역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천주항의 발전을 이끌어냈다. 천주항은 해상실크로드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광주, 항주, 명주(영파)와 함께 송나라 시기 중국의 4대 무역항구 중의 하나였다.

북송 초기에 천주항의 대외무역 규모는 엄청났다. “아라비아 선박들로 가득차고, 온갖 화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표현하기에 이를 정도였다. 송나라 철종 2년 즉 1087년에 천주에 정식으로 시박사(市舶司)를 설치하여 해상무역을 관리하고 세수를 거두었다. 당시 시박사를 설치한 무역항구만이 비로소 직접 해외무역을 하는 배들을 출항허가를 내줄 수 있고, 외국의 통상선박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따라서 시박사를 설치했다는 것은 천주항의 역사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외무역사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시박사는 일종의 세관 역할을 하는 관청이라 할 수 있는데, 대외무역에 소홀했던 명청시기에는 ‘해금(奚琴)’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명나라 초기에는 광둥의 광주와 절강의 명주와 함께 복건의 천주 등 세 곳에만 설치되었고, 청나라 시기에는 천주와 명주의 시박사는 폐지하고, 광주만 그대로 두었다.

천주항의 수출입 무역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남송 말기에는 광주의 무역규모를 초과하여, 중국 최대의 무역항이 되었다. 1974년 7월 15일 천주항에서 700여년 전 송나라 시기의 고대 무역선박이 발견되었다. 이 고대선박은 현재까지 발견된 선박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크기도 가장 큰 목조선박이었다. 출토당시 길이가 24.2m, 넓이가 9.15m 였으며, 복원 후에는 길이가 34m이고 폭이 11m이며, 깊이가 4m에 이르는 커다란 배였다. 채적 중량이 200여t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당나라 시기 ‘육상 실크로드’에서 700여 마리의 낙타가 운반하는 화물량에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양이었다. 배안에는 2300kg의 향료, 500여개의 당송시기 엽전, 50여점의 송나라 자기와 기타 물품들이 있었다. 이는 당시 천주를 중심으로 도자기와 향료의 무역이 활발하였고, 송원시기에는 천주가 실질적으로 해상무역의 거점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